
		<b>보 도 자 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2월 16일(목)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 복지정책팀장 이순구 ☎440-2911 • 담당자 김 율 하 ☎440-2915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평가 첫 ‘최우수’ 수상 영예

- 인천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인천복지기준선 실현의 성과물 -
-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17개 시·도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
-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어떤 영역도 복지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꼼꼼히 행길 것 -

인천광역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0년 지역 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시·도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인천시의 사회보장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이다.

시민의 욕구와 자원을 점검하고 민과 관의 협력과 시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가 나아가야 할 청사진과 이정표를 담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과 평가, 환류 과정에 대한 전문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평가는 계획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우수성과 지역주민의 참여도, 민관협력 등 5개 분야와 지역균형 발전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인천시는 인천 2030 미래이음과의 연계성, 시민 교육 등의 민관협력, 다양한 시민 참여, 체감 있는 복지정책 구현과 군구 복지격차 해소의 균형발전 전략제시 등이 우수평가 항목으로 인정받았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생활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인천 복지기준선을 발표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정책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복지기준선 발표가 이번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이번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은 우리시 복지비전인 당당한 시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삶, 복지특별시 인천을 위한 시와 시민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이며, 인천의 복지만큼은 누구나 차별 없는 소외 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로,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어떤 영역도 복지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나 갈 것’이라 “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인천 복지기준선 최종보고회, 2020.10.29.(목)〉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의 29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복지기준선 최종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천복지기준선 시민평가 모니터링단 위촉식, 2021.04.01.(목)〉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의 1일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열린 '인천복지기준선 시민평가 모니터링단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